



전통 물고기잡기 '가래치기'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지난 5일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에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모여 대나무로 만든 원뿔형 가래를 물속에 집어넣어 갇힌 물고기를 잡아내고 있다. 전통방식 물고기잡이인 가래치기는 벼농사가 끝나고 저수지의 물을 빼 1년 농사를 마친 주민들이 임어와 붕어, 가물치 등을 직접 손으로 잡는 방식이다. (강진군 제공)

수산물 소비 촉진 나선 전남도

日 원전사고 영향 꽃게·우럭 등 소비량 15% 감소 비상

수산물 이력제 확대·원산지표시 강화 등 4대 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자 전남도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4대 대책을 마련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 불안이 지속되면서 9월 말 현재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통 시장은 30%, 횡집은 16%, 대형마트는 10% 가량 감소했다.

전남도가 주요 수산물인 꽃게, 우럭, 넙치, 참돔, 농어를 대상으로 한 소비량 조사에서도 전년보다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막연한 불안·불신감으로 수산물 전체 소비가 위축됐다고 보고 최근 수산물 소비 촉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가 마련한 대책은 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합동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191개, 수입산 19개, 가공품 37개 등 모두 247개 품목으로 이전에 비해 단속 횟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 공개하기 위해 내년에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구입하고 휴대용 계측기도 도와 시·군에서 26대를 구매해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시·군과 수협,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식행사도 주기적으로 지원과 소비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또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명재 해양수산국장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문화상' 후보자 추천하세요

25일까지...문학·예술·학술분야 10명 이내 선정

전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전남도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은 전남도문화상은 문학·예술·학술 등 3개 분야로

분야별로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또한 문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 도내에서 3년 미만 거주했다던가 전남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후보자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김충경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학·예술·학술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성군, 독거노인·저소득층에 '사랑의 땀감' 70여t 지원

보성군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관내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땀감'을 나눠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이번에 배포되는 사랑의 땀감은 70여t으로,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나무를 모아 알맞은 크기로 자른 것이다. 이들 땀감은 읍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32가구와 어린이 보호시설 1개소 등 33개소가 받았다.

박성주 해양산림과장은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내 숲 가꾸기 법인 및 별채업자 등 땀감 지원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땀감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성군민들께서 따뜻한 겨울



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설 명절 전에도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랑의 땀감을 전달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광양 배수펌프장 가동 일시 중단

시, 내년 4월까지 6개월간...연간 7000만원 절감

광양시가 5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배수펌프장 휴지기간으로 정하고 배수펌프장 가동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리 대상 배수펌프장의 설치 목적과 배수펌프장 수해지의 재배작물, 경작시기, 월별 강우량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침수 피해가 없을 것

로 예상되는 진월 중도배수펌프장 등 5개 펌프장에 대해 고압전기의 수전을 중지한다. 이를 저압전기로 대체·운영하면서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또 겨울철 휴경농지가 70%를 초과하는 지역의 배수펌프장과 자체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배수펌프장 가동 중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수펌프장별 특성을 고려해 가동기간을 달리하는 계획을 실행해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통해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수펌프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정기기자 pyj4079@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렇게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2013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여수시 대상 수상

여수시가 2013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5일 "김충석 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13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 응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 수상 기관 및 단체는 여수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 등 21개 기관·단체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높아진 도시 브랜드와 도로교통, 관광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박람회장 재개장 이후 168만명의 관광객이 여수시를 방문했고, 지난 추석 연휴 5일 동안 25만 명이 여수시를 찾은 바 있다. 지난달 20일 현재 관광객 9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도시 브랜드가 높아졌고 특화된 관광상품과 인프라 구축 등 현안해결에 매진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맞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정보공개모니터단

전남도 40명 위촉

전남도는 사전행정정보공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도청 업무에 관심이 많은 도민으로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총 40명으로 구성했으며 후보수로 11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전남도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통해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 내용을 대상으로 도민이 관심있는 정보의 제공 여부와 사전공표목표의 적정성 및 운영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사전행정정보공개란 도민의 요청 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제도다. /정명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읍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